

##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0.02.17~20.02.28)

### □ 3대 도시권의 관계 인구는 1000만 명 초과 [2/18]

- 「관계인구」는 이주나 관광이 아닌, 일상생활권이나 통근권 이외의 특정지역과 지속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가지는 인구를 의미함. 그러나 그 실태는 충분히 파악되어 있지 않음.
- 국토교통성은 3대 도시권의 관계 인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8세 이상의 거주자 약 4678만 명 가운데 20%정도(약 1,080만 명 : 추계치)가 특정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관계인구인 것으로 판명.
- 특정지역을 방문하는 관계 인구는 응답자 중 23.2%를 차지함. 그 내역으로는 지연·혈연 이외의 지역에서 식사나 취미활동을 하는 취미·소비형(10.5%)부터, 지역의 산업창출이나 지역만들기에 참가하는 직접참여형(3.0%)까지 다양하게 관련하고 있음.
- 관계 인구의 개념에 대한 인지도는 낮음. 관계인구의 정의와 개념을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하며,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7%임.
- 올해는 시범적으로 3대 도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전국 규모의 조사를 실시할 예정.

### □ 제2회 부동산시장 거시·미시 분석 향상을 위한 연구회 개최 [2/19]

- 국토교통성에서는 리먼 쇼크 이후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 지수(주택)을 개발하고, 2012년 8월부터 시험 운영, 2015년 3월에 본격 운용을 시작함. 또한 2016년 3월 부동산 가격 지수(상업용 부동산)의 시범 운영을 개시함.
- 그러나 향후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시적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저출산 고령화와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의 상황을 감안하면, 지역 단위로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2019년 9월부터 “부동산 시장의 거시·미시적인 분석 향상을 위한 연구회”를 설치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제2차 회의에서는 기존 주택에 관한 지수를 비공개로 토의 할 예정.

### □ 일본 기업이 인프라 메인テナンス 기술을 어필 [2/21]

- 국토교통성은 2월 13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국민주택부의 협조를 얻어 「인프라 메인テナンス 세미나」를 개최함. 세미나에는 도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정비를 테마로, 일본 정부의 대응과 일본 기업의 기술·서비스를 발표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인프라 정비 사업에의 참가·협조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됨.
- 2월 13일 세미나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일본과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및 국영·민간 기업 20개 이상 총 90명이 참가함.

□ 주요 건설 자재 수급·가격 동향 조사(2020년 2월 1일~5일 현재) [2/25]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를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자재 동향은 모든 자재에서 가격 동향, 수급 동향, 재고 상태 모두 보통으로 평가. 재해 3현에서도 모두 보통으로 평가됨.

□ 제1회 주거지원 연계강화를 위한 연락협의회 개최 [2/26]

-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및 법무성은 주거지원 관계부처 및 관계단체로 구성하는 연락협의회를 설치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함.
- 이 연락협의회는 생활곤궁자, 노인, 장애인, 유아를 육성하는 가정, 교도소 출소자 가운데 생활과 주택에 배려가 필요로 하는 사람의 주거 확보와 생활 안정, 자립 촉진에 관한 세이프티넷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복지 분야·주택분야에서 한층 더 밀접한 연계를 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법무성의 관계부처(국장급) 및 각 관계단체에서 정보공유와 협의를 실시하는 것임.
- 2020년 3월 3일 도쿄 중앙합동청사에서 1시간의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예정.